2026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 부서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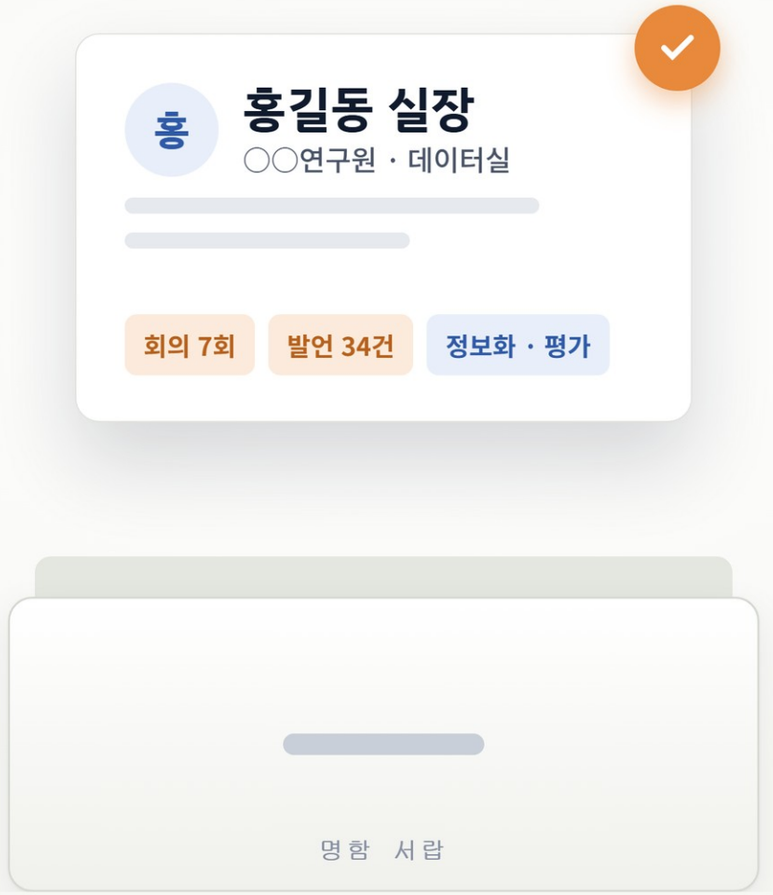
서랍 속 명함을 기관의 자산으로

Open · 소통·협업 확대

지식과 고객을 자산으로

정보전략실 AX혁신팀 · 권혁준 · 박성호 · 안홍민 · 한지민

2026. 10. 20.



AI 회의록에 명함 한 장만 이어 붙이면?

> **이미 운영 중인 AI 회의록에 참석자 '명함'만 이어 붙이면,**
> **누가 언제 어느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남길 수 있지 않을까?**
>
> 이 질문 하나로 출발해, 두 달 만에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2026. 8월
아이디어·구축계획 수립

2026. 8월
명함관리 스토리보드 작성

2026. 9월
명함관리 구축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24건 · 화면 7개

2026. 9월
바이브 코딩
팀이 직접 개발

2026. 10월 · 현재
POC 검증
실제 명함·회의록으로 운영

흩어진 개인의 명함에서, 기관이 함께 쓰는 자산으로

02 기존 대비 개선된 점

	AS-IS 개인의 서랍	TO-BE 기관의 자산
고객 관리	**명함첩·앱에 개인 보관** 소속이 바뀌면 같은 분 명함이 또 쌓임	**기관 단위 통합 관리** 한 사람은 한 카드로, 소속 변경은 이력으로
전문가 관리	**부서·개인별로 흩어져 공유 불가** 담당자가 바뀌면 인맥도 사라짐	**전 부서가 분야별로 함께 검색**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맥은 기관에 남음
정보자산 관리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 없음** 회의를 반복해도 쌓이는 자산이 없음	**회의록과 연계해 발언까지 이력화** 참여도·전문성을 근거로 확인

지금은 답할 수 없던 질문에, 이제 답합니다

올해 몇 개 기관, 몇 분이 함께했을까?

참여 기관·인원 자동 집계

✓ 명함 등록 + 참여 이력

끊긴 분과 꾸준히 오시는 분은?

재참여율로 관계 지속성 확인

✓ 성과 지표 ①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신 분은?

회의록 화자 연계로 발언비율 측정

✓ 성과 지표 ②

늘 같은 기관, 같은 분만 모시지 않나?

부서·기관별 쏠림을 숫자로

✓ 성과 지표 ③

이름 없이 전문가를 찾을 수 있나?

발언 이력으로 AI가 사람을 추천

✓ AI 회의록 LLM 탭

개인별 평가비·자문비 지급 현황은?

개인별 평가·자문 참여 이력으로 확인

✓ 참여건별 역할 기록

명함을 찍으면, 사람이 등록됩니다

한 장 등록

시뮬레이션 · 예시

○○연구원 데이터실

홍 길 동

실장 · Data Strategy

M 010-1234-5678
E hong@example.or.kr

이름	홍길동 공백 제거
소속	○○연구원 · 데이터실
직위	실장
휴대폰	010-1234-5678
이메일	hong@example.or.kr
구분	공공기관 자동 추정

OCR 자동 등록 · 틀린 글자만 수정

사람마다 카드 · 참여 이력 누적

여러 장 한 번에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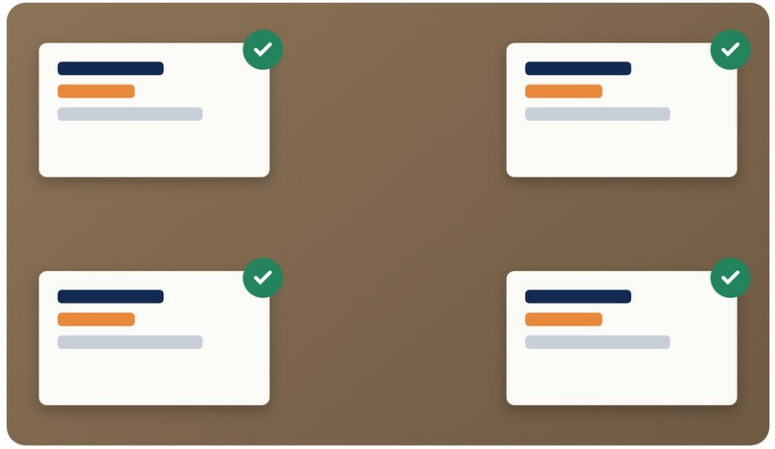


사진 1장 → **4장 검출** → 4명 등록

일괄 등록 · 서랍 속 기존 명함도 한 번에

적용 기술 | 맥 내장 글자 인식(OCR) · 한국어+영어 | 사각형 검출로 장별 분리 | 방향 보정 | 이름·전화번호 정규화 | 동일인 판정 (이메일 → 휴대폰 → 이름+기관)

명함·이름·연락처는 예시입니다

회의록의 '참석자 1'이 실명이 됩니다

전체녹취 | 회의록 | 보도자료 — 화면 예시

00:00:04 **김○○ 실장** 우선 메타데이터 2만 5천 개 중에…

00:09:38 **참석자 2** 로우 값, p 값 이런 것들이…

00:14:41 **김○○ 실장** 통계청 코시스 메타데이터가…

00:27:00 **참석자 3** 추천 서비스가 월평균 700건…

00:41:12 **김○○ 실장** 수요자 관점의 설명이 먼저…

01:02:40 **참석자 5** 네, 동의합니다.

김○○ 실장 · 발언 34건 · 18분

AI 요약 — 메타데이터는 수요자를 위한 설명 정보여야 하며, 통계청 사례를 기준으로 표준화를 제안



- 실제 운영 화면 · AI 회의록 전체녹취
- 회의록 요약 서비스의 참석자를 명함 정보와 자동 연계
- 참석자 수만큼 클릭하면 끝 — 목소리를 기계가 맞힐 필요 없음
- 원본 녹취는 그대로, 화면에서만 실명으로 표시

왼쪽 녹취·요약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모신 분이 도움이 됐는지, 숫자로 봅니다

01 재참여율
2회 이상 참여자 ÷ 전체 참여자
관계가 이어지는가

02 발언비율
일정 길이 이상 발언 ÷ 전체 참여
한마디도 못 하고 가신 분은

03 특정 부서 쏠림
부서·기관별 참여 분포
늘 같은 곳만 모시고 있는가

04 분야연결
2개 이상 분야에 참여한 인원
자문이 평가·교육으로 이어지는가

05 평균참여간격
같은 분의 참여 사이 평균 일수
관계를 얼마나 자주 유지하는가

06 신규 유입 추가
기간 내 처음 참여한 인원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있는가

명함첩이 아니라, 대외 네트워크 성과관리 도구입니다

이름을 몰라도, 말로 전문가를 찾습니다

기관 행사·자문·평가·협의회에 누가 왔고 무엇을 말했는지를 명함에서 읽고 회의록에서 이어, AI가 지식정보로 구축합니다.

명함 → 참여 이력 → 발언 요약 → **AI 검색**

새 화면 없이 지금 쓰는 **AI 회의록 LLM 탭**에서 묻고, 연락처는 명함관리 화면으로 연결합니다.

AI 분야 자문해 주실 분 있나요? [묻기]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신 세 분입니다.

김 **김○○ 실장 · ○○연구원**
정보화·평가 · 7회 참여 · "데이터는 수요자 관점 설명이 먼저"

정 **정○○ 교수 · ○○대학교**
평가 · 2회 참여 · 제안평가 위원

박 **박○○ 사무관 · ○○청**
대외협력 · 3회 참여 · 표준 적용 사례 공유

근거 · 명함관리 인물 3건 · 회의록 2건 — 화면 예시

오른쪽 질문·인물은 설명용 예시입니다

비예산, 내부 전산자원으로 직접 구축했습니다

01	02	03	04	05	06
명함 사진	**여러 장 분리**	**글자 인식**	**저장·동일인 정리**	**로컬 LLM**	**검색 색인**
촬영·스캔	사각형 검출	OCR · 한국어+영어	변경 이력 보존	발언 요약	회의록과 함께

상용 명함관리 솔루션(CMS) 도입 시

~~연 약 1,058만원~~

1인당 월 4,900원 × 180명 × 12개월
명함·개인정보가 외부 서버에 저장
회의록 연계·성과 측정 없음

0원

기존 GPU 장비(맥 스튜디오) 재활용
추가 구매·설치 0건

클로드 코드 바이브 코딩으로 팀이 직접 개발
발언 요약은 내부 로컬 LLM

명함 사진은 내부망 밖으로 나가지 않음

주황 테두리 = 이번에 새로 만든 처리 · 나머지는 기존 AI 회의록 구성 재사용

누구나 쉽게 쓰니, 홍보 없이 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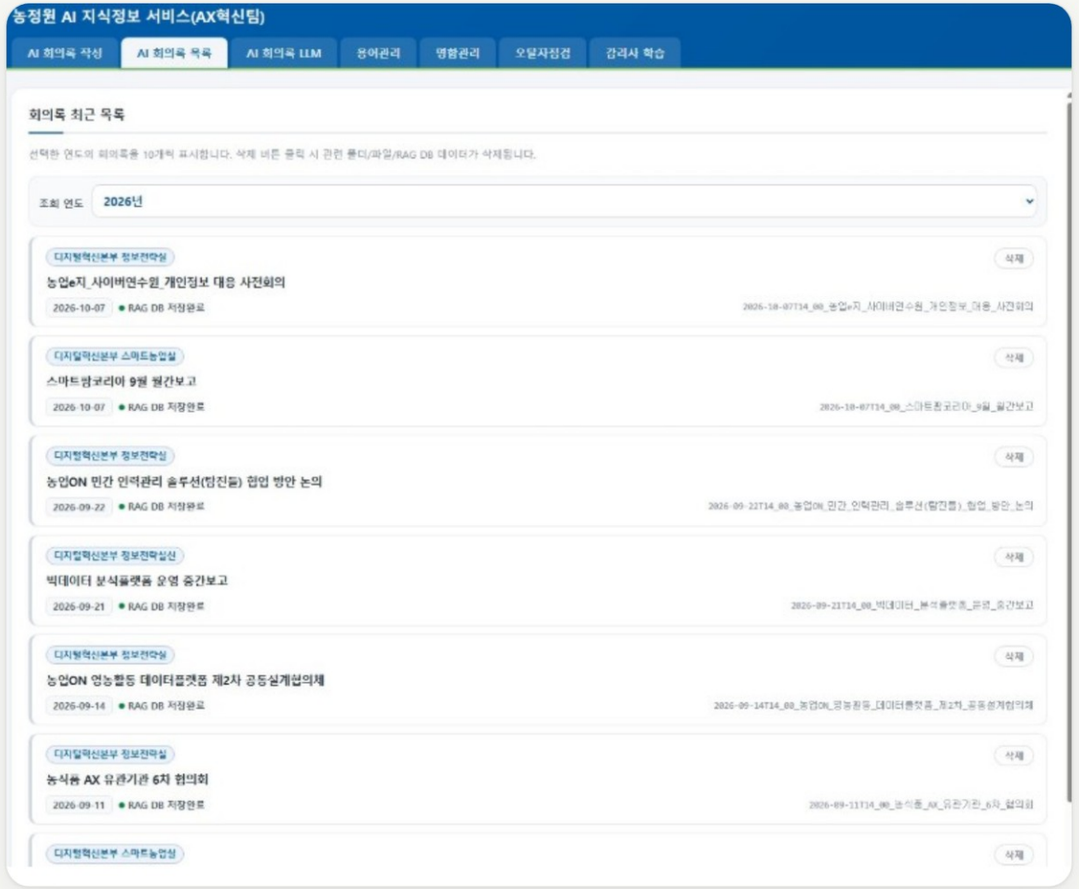
홍보 없이 두 달 동안 등록된 회의

약 80 건

한 화면의 탭으로 이어지는 흐름

AI 회의록 작성	회의록 목록	회의록 LLM
용어관리	오탈자 점검	명함관리

- 오타 검증·명함 등록을 회의록 요약 서비스 안에서 처리
- 새로 익힐 시스템 없음 — 쓰던 화면에 탭 하나



오른쪽: 실제 AI 회의록 목록 화면 (2026.10)

자체 구축·자체 운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외주 구축이라면	AX혁신팀 자체 구축
만드는 사람	× 외부 사업자	✓ 내부 직원 간 학습으로 직접
서버·운영	× 외부에 의존	✓ 실 내 서버, 직접 운영
사업자 변경 시	× 인수인계 공백·중단 위험	✓ 영향 없음
수정이 필요할 때	× 추가 계약·대기	✓ 필요할 때 바로 수정
노하우	× 업체에 남음	✓ 기관에 쌓임



전 부서가 함께 쓰고, 제도로 정착시킵니다



1 회의록 작성 절차에 명함 등록 포함
회의·행사가 끝나면 등록, 이력은 자동으로 쌓입니다

2 분류·역할 코드는 관리자가 직접
바뀔 때마다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성과 지표를 정기적으로 공유
지표를 근거로 자문단 구성과 회의 운영을 개선합니다

쓰는 만큼 쌓이는 구조 — 담당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에 남습니다

예산 0원으로, 돈과 시간을 돌려받습니다

07 기대 효과

명함관리 솔루션 구독비

1,058만원 / 년

4,900원 × 180명 × 12개월

회의 1건당 참석자·이력·회의록 정리

~~60~~ → **10분**

분야별 전문가 섭외·전문성 확인

~~30~~ → **10분**

ROI

투자 대비 효과

투입 예산 **0원** →

연간 효과

1,058만원 + 약 400시간

≈ 50 근무일 (8시간 기준)

시간 산출: 회의 약 80건/2개월 → 연 약 480건 × 50분 절감 = 400시간
전문가 섭외 절감분은 제외(보수적 추정)

인맥이 기관의 자산으로

담당자가 바뀌어도 관계가 이어집니다

회의 운영이 바뀝니다

말씀 못 하고 가신 분을 찾아 개선합니다

조직의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발언·회의록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시간 절감은 POC 담당자 실측 기준 · 막대는 같은 축(60분 = 전체 길이)

서랍 속 명함을
기관의 자산으로

이어서 실제 화면을 시연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정보전략실 AX혁신팀